

멘토링(Mentoring) 교육을 마치면서

멘토가 가르치고, 제자인 멘티는 배우고 이 행위를 멘토링이라 하는데 단순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인생의 조언자 관계를 말한다.

멘토의 기원은 BC18세기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시인 호머가 지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고대 이타케의 왕인 오디세이는 뜻하지 않게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자, 절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인 멘토에게 자신의 집안과 아들 텔레마코스 교육을 부탁한다. 그날 이후 멘토는 텔레마코스에게 가정교육과 훗날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서 그의 친구이자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 즉 멘토는 단순한 지식만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안내자였다. 텔레마코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멘토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다. 이렇듯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멘토는 그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인생의 참 스승으로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늘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남을 가르친다는 말로 사부님, 선생님, 교수님 등이 있지만 멘토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흔하지만 멘토의 관계는 흔치 않다.

대개 전문분야에서 장인의 정신과 오래 동안 종사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고 후진을 양성하는 사람을 사부라고 한다면, 멘토는 멘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멘토의 지도를 받고, 멘토의 기술과 살아온 길, 정신 까지도 배우는 단계로, 우리나라에서는 멘토 보다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용어로 사용되는



김 의 겸

본회 이사, 양계 마이스터
산내들농축 대표
본지 편집위원

사부님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주관으로,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방학동안 6박7일 코스로 “2015 농업마이스터 미래리더 양성 멘토링 교육 과정”을 14개 품목 25명의 농업마이스터가 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시켰다.

농업 마이스터와 소통을 통하여 영농기술, 농장관리, 판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함으로써, 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농산업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 수립으로 농산업분야 진출을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학생들에게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이스터와 접할 수 있는 시간 및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멘티(학생)는 농업 창업 또는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마이스터에게는 후계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발전을 위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훌륭한 멘토를 섭외하고 멘티와 연결시켜 관리하는 능력일 것이고, 미래농업의 리더인 마이스터는 이미 정부에서 선정한 실력과 교육역량을 갖춘 농업 리더의 롤모델을 멘토로 지정하여, 멘티는 멘토를 통해 전문지식 전수는 물론 소양까지도 배워 미래 농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1회성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멘토링 교류를 통하여 마이스터의 경영기법 및 차별화된 성공 노하우를 멘티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 유능하고 참신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



필자도 양계 마이스터로서 이번 교육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 2명을 배정 받아, 농장실습, 이론교육, 현장견학, 소양교육, 문화탐방 등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시켰다. 직업·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농업 진출 자신감, 농업현장 지식과 실습,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무더위와 싸우며, 지도 했지만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다.

흔히들 멘토링은 멘티만 이익이고 멘토에게는 배우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멘토로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내가 어떻게 지도 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진로가 결정되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강진에 살고 있는 학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대학 졸업 후 농장 창업을 하여 경영을 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확고했으며 안정에 살고 있는 학생은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여 유통까지 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마쳤고 브랜드와 마케팅 까지도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보고 과연 나는 고3때 저런 꿈을 꾸었을까 새삼 되 돌이켜 본다. 요즘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우리들이 자라온 과거와 너무나 차이가 많았고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는 요즘 이런 학생들을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하여 1학기

다니고 자퇴 후, 호주에서 6개월 농장 생활하면서 소들을 방목하며 농장경영 하는 것을 보고 축산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농업계 학교에 다시 입학하였고 한 학생은 부모님이 육계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데 현재의 시설 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농장을 창업하여 최고의 생산성을 올려 부를 창출 하겠다는 포부를 듣고 멘토의 책임과 지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멘티의 질문에 멘토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접하면서 아니다 자수성가 하였다고 말해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를 강조하면서 농장 설립 전 내가 항상 읽고 머릿속에

폴.마이어의 성공철학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린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상상하면서 실천한 “폴.마이어의 성공 철학”이 담긴 액자를 멘티에게 전해주었다. 지금은 이루어 질것 같지 않지만 멘토가 경험한 결과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책상 앞에 걸어두고 매일 읽고 상상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당부를 하였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은 하였지만 멘토로서 멘티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한 축산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여름은 더위만큼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래도 보람된 일을 했다고 자평 해본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